

111학년도 1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13)

주제: 일본 중세(中世)의 국가와 종교

중국문화대학교 111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13회 강연에서는 일본 도쿄(東京)대학교 명예 교수 스에키 후미히코(末木文美士)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중세(中世)의 국가와 종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스에키 교수는 강연 PPT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에서 교토(京都)의 금각사(金閣寺/킨카쿠지)와 미부데라(壬生寺)를 소개하였으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가 사찰을 지은 이야기와 전통 불교 행사에 대해 언급하였다.

고대(古代)에서 천황(天皇)보다 불교가 우위에 있었다는 점은 쇼무 천황(聖武天皇)이 발원하여 만든 대불(大佛)과 교겐 천황(孝謙天皇)이 지지하는 도쿄(道鏡)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간무 천황(桓武天皇)이 신도(神道)를 재흥(再興)시킨 것을 시작으로 헤이안쿄(平安京內) 내에서는 더 이상 불교 사찰을 짓지 않게 되었다. 스에키 교수는 “중세는 헤이안(平安) 말기부터 무로마치 시기(室町時期)인 11세기에서 15, 6세기에 이르러 일본의 전통적인 국가 구조 특징은 기본적으로 중세 전기(10-13세기)에 정해져 에도(江戸)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하였다.

세속적인 국가권력(왕권·현(顯))과 신성(神聖)한 종교권력(신불·명(冥))이 대치하면서도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왕권은 천황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섭정(攝政)과 관백(關白), 상황(上皇)에 의해 통제되었고, 12세기 후반 이후 무가 정권(武家政權)이 들어서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조정(朝廷), 장군(將軍)을 중심으로 한 막부(幕府)가 대치하는 구조가 되었다. 막부(幕府) 집권과 함께 천황은 문화 중심의 역할을 맡았다. 중국에는 《예기(禮記)》에 지켜야 할 의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율령(律令)이 7, 8세기에 완성되었으나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소위 유직고실(有職故實)을 따르는 것 외에는 지켜야 할 의례가 없었다. 또한 형식적으로 장군을 임명하는 것도 천황의 몫이었다. 이러한 직책은 19세기 전반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신도(神道)와 불교(佛敎)에서는 불법(佛法)의 힘이 강하여, 땅에 있는 신의 힘을 압도하였으나, 신의 힘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중세까지는 신불습합(神佛習合)의 영향으로 본지수적(本地垂迹)에 드리워진 사상이 우선되었으나, 신도(神道)는 13-15세기경에 보편화되면서 점차 신불습합(神佛習合)에서 자립하게 되었고, 18-19세기경에는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가 신도(神道)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왕권과 신불(神佛)이 대항하는 수평적 이원구조는 일본 특유의 것으로, 중국이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도교를 국가체제에서 배제하는 수직적 일원구조와 태국에서 불교를 세속적 왕권 위에 세우는 수직적 이원구조와는 다르다.

일본의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메이지 유신(明治維新)(1868년)의 거대한 사회변혁 이후 변화되었다. 신불분리령(神佛分離令)이 그 상징이다. 근대(近代)의 권력 구조는 천황 중심으로 일원화되고, 종교도 천황에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구조는 제 2차 세계 대전 패전(1945년)까지 이어졌다.

그렇다면 중세(中世)의 이원적 구조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을까?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천태종(天台宗)의 사이초(最澄)(766/767-822)이다. 사이초(最澄)는 당나라에 들어 법(法)을 구하고, 일본에서 천태종(天台宗)을 선양하였고, 말년에는 《범망경(梵網經)》에 따라 대승계(大乘戒)(범망계)의 계단(戒壇)(대승계단/大乘戒壇)을 쌓으려 하였으며, 이를 조정(朝廷)에 신청하여 사후(死後)에야 승인을 받았다. 중국에서도 쓰이는 범망계(梵網經)는 출가(出家), 재가(在家)에서도 통용되는 대승보살(大乘菩薩) 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출가인(出家人)의 계율(戒律)은 《사분율(四分律)》을 바탕으로 한 구족계(具足戒)이다. 사이초(最澄)는 구족계(具足戒)는 소승계율(小乘戒律)이며, 출가인(出家人)은 범망계(梵網戒)만 받으면 된다는 주장을 부인하였다.

사이초(最澄)는 범망계(梵網戒)가 출가(出家), 재가(在家)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진속일관(真俗一貫)」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불교계의 보살은 세속적인 군자에 해당하며, 양자가 협력하는 체제를 이상적인 체제로 여겼다.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는 국보(國寶)로 불리며, 정신계의 지도자로서 세속의 지도자 국왕(천황)과 함께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다. 그 뒤를 잇는 불교자는 국사(國師), 국용(國用)이라 불리며 각 지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 보살의 이타정신(利他精神)으로 사람을 인도한다.

사이초(最澄)의 이러한 이상(理想)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중세의 일본에서는 왕권과 불법(佛法)이 대항하면서 협력하는 이원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왕권과 불법이 일체화되지도 않고, 해체되지도 않아 사회 구조의 양분으로서 19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으나 구미(歐美) 개국의 요구에 직면하는 막부시대 말(幕末)에 권력 구조의 다중화, 이원화가 위협받으면서 일원화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불교계에서는 일본 승려(僧人)가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못해 중국 유학을 떠날 때 출가인(出家人)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미수계(未受戒) 취급을 받아 견습(見習) 사미승(沙彌僧)으로 인식되고 만다. 그래서 에도(江戸) 시대에는 「위계첩(偽戒牒)」을 발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과 불법(佛法)이 균형 있게 서로 돕는 구조는 오늘날 세속권력이 폭력화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 상황에 비하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에키 교수는 이러한 생각이 유네스코 현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網頁連結: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日文撰稿: 齋藤正志 日文系教授 中文翻譯: 涂玉盞 日文系副教授)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